

800MHz 로밍? 아마 어려울 걸!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를 함께 쓰자고?'

'내년 이후에나... 아냐, 아마도 안 될 것 같은데~!'

LG텔레콤이 바라던 이동통신용 우량 주파수

'800MHz 대역 공동 이용(로밍 Roaming)'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8일 제18차

회의를 열어 '1GHz 이하 저대역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수립한 뒤 이동통신 시장 발전과 소비자 후생

을 고려해 로밍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지금 아니면 마지막 최적기 놓치는 셈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이 올해 말에나 확정될 여정인 데다 LG텔레콤 고객에게 800MHz와 1.8GHz 대역에서 모두 통화할 수 있는 듀얼밴드 단말기(휴대폰)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기지국 설비를 갖추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을 감안하면, 아예 로밍을 시도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또 로밍을 강행해 2010년께 LG텔레콤 소비자의 이동전화 통화범위(커버리지)가 SK텔레콤 소비자만큼 넓어지더라도 불과 1년 6개월여 동안 로밍한 뒤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에 따라 한 번 더 손을 댈 수밖에 없게 된다. 즉 2010년이면 SK텔레콤이 800MHz를 독점하도록 허가받은 2011년 6월이 눈앞으로 바짝 다가서는 것이다.

따라서 2008년 7월, 바로 지금이 800MHz 로밍 최적기였다. 어찌 보면 KTF와 LG텔레콤이 800MHz 로밍을 요청했던 지난 2005년이 최적기였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로밍이 그야말로 물을 건너는 셈이다.

방통위 제18차 회의 의결을 지켜본 LG텔레콤도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독점문제를 해소해 이동통신시장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로밍 의무화를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량 주파수 공동 사용이나, 설비 투자 확대나

그러나 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의 지적처럼 "시간이 변수"였다. "실질적으로 로밍이 시장에서 작용할 것을 감안하면 1년 정도인데 실효성이 있는지가 문제"라는 게 이 위원 지적! 이 위원은 또 "주파수 관리자 입장으로는 주파수 가치를 증대하는 측면에서 허용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시간상으로 과연 보상하느냐가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즉 "800만에 달하는 LG텔레콤 소비자가 적은 수가 아닌데,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로밍이) 도움이 될 것이나 실질적으로 로밍이 시장에서 작용할 것을 감안하면 시간이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결국 정책적으로 로밍을 선택할 시점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다. 이경기 위원은 설비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방향에 제시하며 사업자 간 자율로밍원칙을 유지하자고 했다. 궁극적으로 로밍을 허용하지 말자는 것. 이 위원은 "로밍 설비 구축, (듀얼밴드) 단말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가) 800MHz에 고착되면 방

통위가 하려는 다음 계획(주파수 재배치)에도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무선) 데이터 량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동통신)네트워크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로밍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LG텔레콤으로부터 점점 더 800MHz 로밍이 멀어질 전망이다.

LG텔레콤은 그동안 "SK텔레콤의 800MHz 대역이 KTF나 LG텔레콤의 1.8GHz 대역보다 1.3~1.8배가량 주파수 효율이 좋아 설비 투자비에서 1 대 1.7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2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합병하면서 우량 주파수 독점에 따른 시장 지배력이 고착화했다"며 "800MHz 로밍을 통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LG텔레콤은 실제로 84개 도시 외 지역과 국·공립공원 등에서 SK텔레콤의 431개 기지국을 공동 이용(로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 경쟁 환경, 어떻게 조성할까?


KTF는 LG텔레콤과 함께 800MHz 로밍을 요구했던 2005년과 입장이 조금 달라졌다. "기존에 투자한 2세대 이동전화 서비스의 통화범위(커버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800MHz 로밍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특히 "800MHz 로밍 문제가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렇다고 800MHz를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는 아니다. "800MHz 주파수 독점, 브랜드 경쟁력, 시장 선점 입지 등으로 SK텔레콤의 시장 독점이 심화했다"면서 "3세대 이동통신(WCDMA) 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2세대 800MHz 대역을 쓰는 소비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대역 자치를 회수해 후발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게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SK텔레콤도 들고만 있지는 않는다. LG텔레콤을 겨냥해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사업자에게 로밍을 제공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특히 LG텔레콤에 로밍을 제공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로밍은 전국망을 갖추지 못한 '신규 사업자에게 1년, 길어야 3년'을 제공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또 "통화품질 차이는 주파수 특성이 아니라 설비투자 부진에서 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또 "로밍에 따른 단말기 교체 부담, 로밍 요구 지역이 통화량이 적은 도시 외곽인 등 소비자 편의 제고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LG텔레콤에 로밍을 허용할 경우 마치 전국적으로 SK텔레콤과 통화품질이 같아질 것처럼 악용될 수 있는 게 문제"라며 800MHz 수성 의지를 불태웠다. SK텔레콤은 다만 로밍 문제가 쟁점화하자 '무선국 공용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SK텔레콤의 무선국 공용화 제안을 어떻게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활용할지 주목된다. 

*위 기사는 개인 의견으로 한국전파진흥원의 의견 및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